<2022년 3월 5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면, 자기에게 믿고 맡기신 일을 보면 된다.

2. 세상에서 사람끼리도 믿고 사랑할수록 큰일을 믿고 맡긴다.

3.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보면, 자기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시는지 측량할 수 있다.

4. 하나님이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큰일도, 작은 일도 안 맡기신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할 일을 믿고 맡기신 것은 자기를 절대 믿고 사랑하기 때문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늘 대화하며 살아야 걱정하지 않으신다.

5. 하나님은 신이시라 육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분별하고 믿어야 된다.